

#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장 형 수(한양대학교)<sup>1)</sup>

## <목 차>

- I. 시작하며
- II. 국제수지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
- III.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 IV. 마치며: 종합, 토론 및 시사점

· 주제어(Keywords): 중국, 재산권, 헌법, 물권법, 비국공유경제  
China, property rights, constitutional law,  
the law of reality, nonpublic-owned economy

1) 저자는 본 연구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이종근 대표, 김병연 교수, 양문수 교수, 박진 교수, 황진회 팀장, 김석진 박사, 고재길 박사께 감사드린다. 특히 김석진 박사의 자세한 조언은 본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글초록】**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무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 9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행위를 통해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수입 등에서 외화를 조달하지 않고도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의 공식적인 외화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서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최종적인 외화수급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무기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도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외화가 그리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위험한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북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북한 내외부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 시작하며**

북한은 2005년 8월 국제사회로부터 긴급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고 소위 ‘개발협력’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에 상주하고 있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상당수를 철수시켰다. 또한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의 도입을 통해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식량배급제의 부분적인 복귀를 꾀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향후 상당 기간 식량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자신감이 없이는 실행하기 힘든 정책이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고, 남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초 이후 비료 및 쌀의 대북지원을 끊었다. 이에 남한의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2008년에는 북한의 식량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더 나아가 북한 내부의 동향에 밝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북한에서 아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남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때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이 2009년 봄 파종기에 비료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북한은 다시 비료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였었다.

그런데 2009년 봄 오히려 북한은 2008년 6월부터 1년간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식량 50만톤 중 17만톤만 도착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식량지원을 위해 북한에 있던 5개 미국 NGO단체 관계자들을 북한에 이미 도착한 식량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기 전인 2009년 3월말까지 전원 출국시킨다.<sup>2)</sup>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참여 숫자에 대한 이견<sup>3)</sup>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굶주리더라도 껴넘치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어쨌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상과는 달리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외부로부터의 식량 등 물자 도입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 정권의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식량 수급을 자신하지 않고는 긴급구호성 원조의 거절, 식량배급제의 부분적 재개 등과 같은 정책을 감히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북한은 2005년 10월 ‘양곡 전매제’를 도입할 때는 이미 상당량의 식량을 비축해두었을 개연성이

2) 미국 NGO ‘머시 코’(Mercy Corp) 대변인 발표 내용(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자)과 철수 완료에 관한 보도 내용(연합뉴스 2009년 4월 3일자).

3) 북한 당국은 그동안 미국 지원식량 40만톤을 분배할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해선 모니터링 요원 59명중 3명, 미국 지원식량 10만톤을 분배할 5개 NGO단체에 대해선 모니터링 요원 16명중 6명을 한국어 구사요원으로 허용해 왔으나, 미국이 WFP 한국어 구사요원을 12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연합뉴스, 2009년 3월 18일자).

높다.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대응을 사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과다 추정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의 최저 식량 수요를 결과적으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북한의 기존 비축량과 내부 공급을 과소평가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에 대한 추계도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져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비료 무상지원과 쌀 차관을 공여하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당한” 액수의 외화가 끊긴 것이다. 그런데도 2009년 5월 15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남한 기업들이 새로 제정되는 법·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면서 강공 전략을 계속한다.<sup>4)</sup> 그래서 언론에서는 북한이 마약, 위조지폐, 위조담배 등의 불법거래 행위를 통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외화수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경제 통계가 매우 드물 뿐더러 외화수급에 관한 통계는 특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화수급 관련 항목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도전이다. Haggard and Noland(2007)는 북한에 관해 공개된 다양한 (신뢰도가 낮은) 경제 통계와 주요국 당국자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

4) 북한 노동신문은 2008년 1월 28일자에서 “미국의 불순계층들이 ‘경제협력’을 마치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그것이야말로 주체님은 짓”이라며 “우리는 ‘경제협력’을 위해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 각 국제수지 항목별로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를 구한 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저자들의 “최적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마약, 위조화폐, 위조담배 등 북한의 비합법적인 외화획득원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주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관광 및 방문수입, 해외노동자의 임금수입, 해외투자기업의 소득, 개성공단 및 임가공업체로부터의 임금수입, 기타 서비스수지 항목, 자본수지 등 주요 항목들에 대한 추정이 누락되었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등 외화수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추정 대상 시기는 2000년에서 2008년의 9년간이다. 이처럼 추정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북한 외화수급에 관한 퍼즐을 맞추어나갈 때 비록 매 연도별로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년에 걸친 평균치 내지는 합계치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정기간이 길면 전체 추정기간에 대한 추정치의 총합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000년 이전의 자료가 희소한 점도 고려되었다.

## II. 국제수지표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

북한의 국제수지를 추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북한 당국이 가용한 외화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국제수지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외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거래(행위)를 파악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

IMF의 통계작성 교육훈련을 거쳐서 북한 당국이 북한의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해야 하므로 이 과정을 미리 살펴보는 의미도 있다.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자국 거주자와 외국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의 거주지나 국적이 아니라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sup>5)</sup> 국제수지표에서는 외국인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 이익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해외교포는 자국의 국민이지만 비거주자가 된다.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영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모두 거주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대사관과 외교관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누어 추정한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나누어진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서비스수지에는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소득수지는 북한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 머물면서 받은 돈과 북한 국내에 일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여 및 임금수지와 북한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의 교포가 국내의 친척에 보내는 송금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구호물자 및 정부간 무상원조가 주요 항목이다.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차를 나타낸다. 자본수지는 크게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분

5)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4)을 참조하시오.

류된다.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구분된다. 직접투자는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인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과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를 나타낸다. 기타투자는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기록된다. 기타자본수지는 해외 이주비 등의 자본이전수지와 특허권·상표권의 거래 등이 포함된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는 외환보유고의 변동(준비자산증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수지 항목 중에서 추정이 가능한 항목들과 외환보유고 증감 통계를 대조하여 통계적 불일치<sup>6)</sup>가 생기면 잔여(residual) 항목으로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도입한다.<sup>7)</sup> 그런데 북한의 외환보유고 및 그 증감은 외부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잔여 항목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국제수지의 각 항목을 추정한 뒤 그 차액을 “외화수급”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외화수급이 양(+)<sup>8)</sup>의 값이면 그 해에 북한은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서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외화의 지출이 있었다는(또는 둘 다)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외화수급” 항목은 외환보유고 증감과 오차 및 누락 항목을 둘 다 포함하게 된다.

6) 국제수지 항목에 대한 추정치간 통계적 불일치가 생겼다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화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밀무역이나 신고하지 않은 자본유출입 등이 의심된다.

7) 외환보유고의 변동과 오차와 누락을 자본수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인 국제수지는 항상 0이 된다.

### III.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 외화의 유출입을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거래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북한은 국가간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로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발표하는 북한의 무역 관련 통계가 남북한간 교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남북한간 외화거래에 관한 정보가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외화거래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이를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남북한간 교역에 비해서 북한의 다른 국가와의 교역과 외화거래에 대한 통계는 신뢰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외화거래를 국제수지 항목별로 살펴본 뒤 남북한간 외화거래를 북한에 대한 외화유입의 관점에서 상세히 추정해보고자 한다.

#### 1. 북한의 상품수지

북한의 상품수지는 북한의 국제수지 항목 중에서 공개된 통계치가 많이 존재하는 항목이다. 북한의 상품교역통계는 북한의 교역 상대국의 통계로부터 역추정되는 거울 통계(mirror statistics)로 작성된다. 현재 KOTRA, UN, IMF에서는 각 국에서 작성된 무역 통계를 집계하여 각각 북한의 무역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sup>8)</sup> UN과 IMF의 거울통계는 거의 모

8) 이석·이재호(2008)는 KOTRA, UN, IMF에서 작성하는 거울통계를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든 회원국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괄성에 장점이 있다. 반면에 KOTRA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보고하는 북한과의 무역통계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을 혼동하여 남한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로 잘못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런데 KOTRA는 각국에 파견된 무역관에서 자체 검증을 통해 해당 통계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를 집계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sup>9)</sup> 하지만 KOTRA 통계는 UN, IMF 거울통계보다 상대적으로 정확성은 높으나 집계 대상국가수가 작은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KOTRA가 집계한 통계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장점이 단점보다 본 연구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KOTRA 통계를 사용하면 누락되는 국가들은 주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다. 북한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많지 않지만 무기수출 등 비공식무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공식무역은 그 일부가 공식무역 통계에 섞여있기 때문에 공식무역에서 비공식무역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통계가 부정확한 이들 국가들의 무역통계를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서 일단 제외하게 되면 통계의 포괄성은 떨어지지만, 북한의 무기수출 등 비공식교역수지 총액을 북한의 외화수급에 산입하는 경우에 상품수지 이중계상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된다. 북한의 비공식교역수지가 외화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 유리할 수도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상품수지<sup>10)</sup>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9) 미발표된 김석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KOTRA의 주장과는 달리 한·중·일 3국의 통계를 제외하면 KOTRA가 집계한 대부분 국가의 북한 무역통계가 남북한을 혼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각국 세관통계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므로 남북한 혼동의 결과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 추정치는 체계적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의 외화수급은 안정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론은 더 강화된다.

10) KOTRA 통계가 북한의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 교역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

보이고 있다. 적자폭은 연간 최소 7.88억 달러에서 15.55억 달러에 달해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이며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북한이 어떻게 조달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표 1> 북한의 상품수지 추정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566	646	736	777	1,020	998	947	919	1,130
수입	1,407	1,615	1,524	1,614	1,837	2,003	2,049	2,022	2,685
상품수지	-841	-969	-788	-837	-817	-1,005	-1,102	-1,103	-1,555

주: 남북교역은 제외함.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 2. 북한의 서비스수지

북한의 상품수지는 무역상대국의 거울 통계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운수, 여행, 보험 등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보다 추정이 더 어렵다. 서비스 수입의 주요 항목은 북한의 운송료 수입,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북한 관광 수입,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용선료 수입, 보험료 수입, 외국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료 수입 등이다. 서비스 지급은 서비스 수입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 통계는 f.o.b 기준이지만 통관기준 수입통계는 c.i.f 기준으로서 보험료, 운임 등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는 거울통계를 사용하므로 북한의 수입은 f.o.b 기준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의 수출은 c.i.f 기준으로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북한의 관광수입<sup>11)</sup>

북한 관광은 북한관광총국 산하 조선국제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위탁하여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은 주로 조총련 및 해외 동포들로 구성되고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있다. 관광상품은 평양, 묘향산, 백두산, 개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 통신,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열악함에도 관광상품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sup>12)</sup> 중국의 북한관광은 북한 관광인프라(수송, 숙박)의 부족과 카지노 등 중국인의 외화 과다유출 우려<sup>13)</sup>로 2003년부터 쿼터제에 따라 연간 5~6만 명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관광시기도 관광성수기(4월-10월)에 집중되고 있다. ‘북·중 항공기 운항약정’은 관광성수기에만 중국 남방항공이 북경-평양 노선에 주3회 취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관광열차는 평양~북경 간 국제열차에 객차 1-2량을 연결하여 성수기에만 운항되고 있다. 2005년에는 중국인 5.7만명(쿼터)이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1인당 5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6년에는 중국인의 도박 등이 문제가 되어 중국이 북한단체관광을 금지하였다가 2008년 9월에 이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관광 쿼터는 문제없이 충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관광객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중국인으로부터의 관광수입과 비슷한 규모의 외화수

11) 2002년도 세계관광기구(WT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관광수입은 금강산관광수입을 포함하여 외래 관광객 약 40만명에 약 1억 5,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추정치는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모두 과다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관광기구는 2003년부터는 북한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 통계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추정을 시도하기로 한다.

12) 2006년 현재 일본에서 판매하는 평양-묘향산 등 4박 5일 상품은 약 25만엔, 중국에서 판매하는 평양-묘향산-개성 등 7박 8일 상품은 약 1,700유로, 폴란드에서 판매하는 개성-평양-구월산 등 5박 6일 상품은 약 1,500유로라고 한다.

13) 평양 양각도호텔 등 3~4곳에서는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나선시에도 한때 임페리얼호텔에 카지노가 개설되었으나 이곳에서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항의로 카지노가 폐쇄되었던 사례가 있다.

입을 매년 북한에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통해서 관람료 수입과 함께 서방국가로부터의 관광수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은 2002년에 초연되어 2005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2006년에는 폭우로 취소되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5년 공연은 참관자수가 약 7,200여명에 달하였으며, 공연 관람료는 2008년 기준으로 40~240유로이다. 아리랑공연으로 북한의 관광수입이 얼마나 순수하게 증가하였는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아리랑 공연이 열린 해에는 북한의 관광수입 총액에 약 700만 달러(7,000명 x 1,000달러)를 추가하기로 한다.

## (2) 용선수입 및 운송료 수입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임대해주고 상당한 용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보유 선박 통계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든 선박은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된다. 본 연구는 영국 로이드가 집계(Lloyd's Register of Shipping)한 선박 통계를 사용하였다. 용선 운임은 동북아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선박 규모별 1일 용선료를 적용하여 북한의 용선수입을 추정하였다. 북한의 용선수입은 연평균 3,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시 자국선박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운송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운송료 수입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항공의 외화수입, 북한 외항선박의 운임수입 등을 파악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운송료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1,500만 달러로 가정하기로 한다.

## (3) 재보험금 청구 수입

북한은 주로 자연재해보험을 영국과 독일에 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북한은 과거 보험사기가 적발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도 있었지만 상당한 외화수입을 거둔 적도 있다고 한다. 일례로 2008년 12월 북한은 3,920만 유로(약 5,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sup>14)</sup> 이 판결로 북한은 2009년에는 상당한 외화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분야에 종사하였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재보험 청구 수입이 5000 ~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sup>15)</sup> 본 연구는 북한의 재보험 청구 수입을 연평균 1,500만 달러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 (4) 북한영공통과 수입

남북한간 영공 개방 합의에 따라 1998년 4월부터 미주노선을 운항하는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허용되었다. 2008년 말 현재 국적기는 하루 평균 14.1회, 제3국 항공기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33.0회 북한 영공을 통과한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선항공기가 2008년에 북한에 지불한 액수는 58억 원(약 550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5월까지 국적기는 142억 원(약 1,400만 달러)을 북한 영공 통과료로 지불하였다.

14) 이 사건은 공산권 국가가 외국에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례이다. 북한은 2005년 7월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하고 창고에 있던 물자가 전소하였다며 영국 로이드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재보험사들은 북한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되어 수십만 가지 피해품목 목록을 제출하는 등 주장이나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며 북한 법원이 판결한 4,000만 유로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청구액의 95%인 3,920만 유로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자).

15) 연합뉴스, 2009년 6월 12일자.

(5) 경수로 건설 북한근로자 임금 수입, 북한 상주 외국인으로부터의 외화수입, 동해 어장 입어료 수입 등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의한 경수로 건설에 북한 근로자들이 100여명 참여하여 월 110-470달러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부각되자 경수로 건설은 2003년부터는 급속히 둔화되었고 2005년에 중단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이 획득한 외화는 경수로 건설지역 남한 상주인력으로부터 얻는 외화수입을 합해도 연 100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로 추정된다.

북한 주재 외교시설, 외국 기관 등에 상주하는 인원이 북한에 유입시키는 외화도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2007년 현재 북한에는 중국, 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상주대사관 24개, 영사대표부 2개, 국제기구대표부 4개 등이 있었다.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관계자는 2008년 현재 UN 관계자 30여명, WHO, IFRC 등 약 100여명이다.<sup>17)</sup> 이들은 분배감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혼자 근무하고 있다.<sup>18)</sup> UNDP 사건에서 보았듯이 국제기구에 고용된 북한 직원의 인건비, 업무관련 외화취득 등도 무시할 정도는 넘는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중국어선 1척당 연간 약 2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동해어장을 빌려주고 있다고 한다. 한때 많게는 900여척의 중국 어선이

16) 북한은 경수로 현장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약 200여 명의 노무인력을 파견하였으나 곧 임금을 보통 근로자 기준으로 11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2000년 4월 이후에는 약 100여 명의 노무인력만 제공하였다(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2007).

17) 2005년 8월 북한이 시행한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국제NGO 북한 주재원에 대한 출국 조치 전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있었다고 한다.

18)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족 동반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동반의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가 함께 주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8년 1월 17일자).

조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유형들의 외화수입은 연도 별로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의 기타 서비스 수입으로 연간 700만 달러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다.

#### (6) 북한의 서비스 지출

북한도 운송료, 보험료, 재보험료 등으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권력층은 외국에서 교육, 관광, 의료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서비스 지출을 2006년 기준 연간 1,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다른 연도는 3% 증가율로 외삽법(extrapolation)을 활용하기로 한다.

### 3. 북한의 소득수지

#### (1) 식당 등 해외무역지사수입

북한은 중국, 동남아 등에 식당, 식품가공업, 무역지사, 호텔업 등에 진출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외투자기업들은 주로 무역성에 소속된 무역회사들인데 이들은 외화벌이 목적 외에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 확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다. 북-중 접경지역에 진출한 무역회사만 해도 100여개가 넘고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40여개의 무역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등 전세계에 산재한 북한의 해외투자기업(식당 포함)은 약 250~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sup>19)</sup> 이들 해외투자기업들은 총매출에서 원부자재, 직원들의 생활비, 세금 등을 차감한 수익 대부분을 현지에서 물품으로 구매

19) 조명철(2009) 및 언론보도 종합.

하여 북한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의 일부만 경화의 형태로 북한에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북한은 2000년대 들어 해외에서 식당업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명철(2009)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해외 식당에서 최소 1,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개 이상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무역상사들도 연간 1,000만 달러 정도는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이 2006년에 식당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약 2,3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추정한다. 나머지 연도는 3%의 증가율을 사용하여 외삽법으로 추정하였다.

<표 2> 북한의 소득수지 추정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역지사	19.2	19.8	20.4	21.0	21.6	22.3	23.0	23.7	24.4
해외근로자	28.0	28.8	31.7	36.0	40.3	46.1	57.6	60.5	63.4
소득수지	47.2	48.6	52.1	57.0	61.9	68.4	80.6	84.2	87.8

자료: 저자 추정치.

## (2) 해외파견근로자 임금수입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인력은 주로 러시아와 중동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건설, 벌목 등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북한은 총 45개국에 약 16,0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월 200~40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sup>21)</sup> 북한은 해외파견 근로자

20) 국제수지 통계상으로는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 구매액과 경화 반입액 등 해외 투자기업의 수익 총액이 북한의 소득수지에 포함된다.

가 외화로 받는 임금의 일부만 본인에게 지급하고 ‘충성자금’, 사회보험료, 영농자금, 혁명사적지 건설 참여 명목 등으로 임금의 약 70%를 현지에서 파견된 감독기관에서 수취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파견 근로자도 받은 임금의 일부는 저축하여 귀국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기준으로 총파견근로자수 16,000명이 연평균 임금 3,600달러(월 300달러)를 받아서 이 중 20%를 현지에서 생활비로 쓰고 70%는 북한 당국에 납부하고 귀국시 10%를 가져간다고 가정한다. 2006년에는 파견 근로자수가 더 늘어 약 20,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에는 체코에 파견된 봉제공에 대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약 300~400명에 달하는 북한 봉제공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이들을 철수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08년에도 북한의 해외파견근로자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북한의 경상이전수지

##### (1) 조총련 송금 및 조선족, 탈북자, 이산가족의 송금

북한은 ‘충성자금’ 명목으로 조총련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거주 친척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북송교포에게 송금하거나 북한 방문시 직접 전달하는 외화도 있다. 이들 자금은 1990년대 말까지는 북한의 주요 외화공급원이었으나 2002년 일본인 납치사건의 공론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으로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북한 조선

21) 2005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에 8,500명, 쿠웨이트(3,000명), UAE(1,500명), 카타르(2,000명) 등 중동에 약 6,000명이 파견되어 건설(12,000명), 벌목(1,800명), 봉제(1,500명) 외에도 요식업, 선박용접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명철(2009) 및 언론보도 종합.

무역은행과 거래하는 일본의 조총련계 은행들이 파산한 것도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가 거의 막혀있지만 제3국을 통한 대북 송금은 가능하다. 송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현금을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직접 전달한다.<sup>22)</sup> 주요 현금 전달경로는 원산과 니가타를 연 20~30회 왕복 운항하는 북한선박 만경봉-92호를 통해서였다. 만경봉-92호는 2005년에는 환경오염보험 문제 등으로 14회 왕복에 그쳤고, 2006년 상반기 3회 왕복 후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로 현재까지 운항이 금지되어있다.<sup>23)</sup>

조총련의 대북 송금액은 일본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추정된 통계치가 있다.<sup>24)</sup> 대북 송금액은 2002 회계연도<sup>25)</sup>에 2,950만 달러, 2003 회계연도에는 2,280만 달러, 2004 회계연도에는 2,310만 달러, 2005 회계연도에는 2,44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6 회계연도에는 400만 달러로 급락하였다고 한다.<sup>26)</sup> 그런데 일본 정부의 발표는 재무성에 등록된 수치만 포함되었으며, 제3국을 통한 송금 및 직접 전달 등 제재의 풍선효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 정부 발표치를 기간 조정된 뒤 50% 정도를 추가한 추정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2006년 이후는 연간 1,200만 달러로 가정한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조선족)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는 외화와 약 2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내 화교에 전달되는 외화도 적지 않다. 2005년 기준으로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 수는 연 3~4만 명으로 추정되며 1인 연평균 4,000위안(약 500달러)을 북한으로 반

22) 이 경우 공식적인 외화소지 한도는 방문자 1인당 100만 엔(약 1만 달러)이다.

23) Haggard and Noland(2007), p. 16.

24) 시오카와 미사주로 일본 재무상은 2003년 6월 일본 참의원에서 2002년도 조총련의 대북송금액이 약 40억 엔(약 3,500만 달러)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세계일보, 2003년 6월 4일자). 일본 재무성은 2004년도 조총련의 대북송금액이 26.8억 엔(약 2,300만 달러)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다(2005. 2).

25) 2001년 4월~2002년 3월.

26) Haggard and Noland(2007), p. 16.

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조선족 친척 보조는 2005년 기준 1,75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금액이 모두 외화로 유입되기 보다는 그 중 상당액이 외국 상품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반입될 것이다. 외국 상품은 북한의 시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조선족 친척보조액의 약 50%가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875만 달러로 추정된다. 나머지 연도에는 3%의 증가율로 외삽법(extrapolation)으로 추산하였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거주 탈북자는 신분 안정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으로 송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나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다.<sup>27)</sup> 2008년 말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14,972명에 달한다. 2002년부터 연간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뒤 2006년부터는 연간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에게 보내는 송금액을 1인당 연평균 200달러로 추정하기로 한다. 한편 6.25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수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2009년 추석 상봉을 신청한 수가 약 88,000여명이므로 실제 이산가족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들은 적극적인 대북 송금군으로 가정하고 1인당 연평균 약 100달러를 북한으로 보낸다고 가정한다.<sup>28)</sup>

27)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정착 탈북자가 북한에 보내는 송금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을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에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28) 이산가족의 경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어 송금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송금 여력도 많아지고 동시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액은 약 3%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lt;표 3&gt; 북한 외 거주자의 대북 외화송금액 추정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총련 송금	45.0	44.4	36.7	34.5	36.1	13.7	12.0	12.0	12.0
중국 송금	7.5	7.7	8.0	8.2	8.5	8.8	9.0	9.3	9.6
한국 송금	7.2	7.5	7.9	8.4	9.0	9.6	10.2	11.0	11.8
합계	59.7	59.7	52.6	51.2	53.6	32.0	31.2	32.3	33.4

자료: 저자 추정치.

## (2)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상원조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UN기구를 통한 다자간 구호성 인도적 지원<sup>29)</sup>과 중국, 미국, 일본, EU 등으로부터의 양자간 인도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계는 2005년까지는 통일부가 집계하였다. 이 통계는 각국이 UN에 보고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통계와 UN에 보고되지 않은 양자간 인도적 지원액을 합하여 별도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이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2006년 이후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UN 인도지원사무국(UNOCHA)에 보고된 실적이 실제 실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신 이용하기로 한다.<sup>30)</sup> 단, 2008년 통계에는 미국의 식량지원액<sup>31)</sup>이 빠져있어서 이를 추

29) UN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1995년 홍수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UN에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개시되었다. UN은 UN 산하기관들의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통합지원 절차인 합동구호요청(CAP)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5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UN 기구별로 지원하고 있다.

30) 김석진(2009, 부록)을 참조하였다.

31) KOTRA, 『2008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9.

가하였다.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액 통계에는 한국이 UN기구를 통해 지원한 인도지원액이 포함된다.<sup>32)</sup> 이러한 지원에 따른 현물의 이동은 남북간 상품의 반출입에 잡히지 않고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한편 각국이 발표하는 원조총액에는 일반적으로 수송비, 관리비가 포함되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인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관리비, 인건비 등이 공제된 액수가 실제로 원조수혜국에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양자간 원조액에는 이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의 경우는 이 비용이 총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고 그만큼을 국제기구의 무상지원 총액에서 삭감하였다.<sup>33)</sup> 한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일부분이 북한의 상품수지에 잡혀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sup>34)</sup>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액의 세부내역 확인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체 인도적 지원 총액의 5%를 추가로 삭감하기로 한다.

중국은 매년 양국간 고위인사가 방문할 때 원유, 식량 등을 ‘선물’ 처럼 제공하는 형태로 무상원조를 공여해왔다. 2001년에는 김정일의 방중, 장쩌민의 방북이 있었으며, 2002년의 김일성의 90회 생일, 2003년에는 우방귀 방북, 2004년에는 김정일의 방중, 2005년에는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우이 부총리 방북, 2006년 김정일의 방중 등이 있었다. 2008년 6월에는 중국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시 항공유 5천 톤과 1억 위안 등 약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총액은 중국해관통계에 집계되고 있다.<sup>35)</sup> 그런데 중

32) 이 통계는 문상원(2009, 78면)에서 구할 수 있다.

33) 이를 반영하는 방식은 무상지원액은 100% 다 계상하고 북한의 서비스지출을 무상지원액의 10%만큼 증가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34) 2000년 이후 KOTRA 북한무역통계에 보고된 곡물도입량보다 WFP가 집계한 대북한 식량원조량이 더 많다고 한다. 김석진(2009)을 참조하시오.

35) 김석진(2009, 152면).

국의 대북 무상원조액을 살펴보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대안친선유리공장에 투입된 돈이 발표된 2,400만 달러가 아니라 약 5,0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해관통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해관통계에 발표된 대북 무상지원액의 30%를 추가하기로 한다.

### (3) KEDO 및 6자회담 관련 '비핵화 지원'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로 시작된 경수로 건설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담당하였는데 한국, 일본, 미국, EU 등 13개국이 참여하여 약 26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KEDO를 통한 대북 지원액의 대부분은 한전에 지급되었던 경수로 터빈 2기 제작비용이어서, 실제로 북한의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연간 50만 톤에 달하였던 미국과 EU 등의 중유공급(2002년 11월에 종결)<sup>36)</sup>과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자재반입 및 북한근로자 임금수입 등이다. 경수로 건설 자재반입은 그 대부분이 남북한 반출입에 기록되므로 북한의 외국과의 외화수급 추정에는 제외된다. 북한근로자 임금수입은 북한의 서비스수지에서 이미 다루었다.<sup>37)</sup>

한편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서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에 중유 100만 톤에 상응하는 물자를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2008년 말 까지 20만 톤의 중유지원을 완료

36) 미국과 EU의 KEDO 관련 중유공급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2007)에 자세한 통계가 있다.

37)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의 경수로 건설관련 지원이 무상지원이 아니고 장기 차관이므로 자본수지에서 다루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유공급만 다루게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미국의 KEDO 관련 중유지원과 '비핵화 지원'에 관한 통계는 Manyin and Nikitin(2008, 2009)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하였으며, 러시아는 2008년에 15만 톤, 그리고 2009년 1월에 5만 톤을 지원하여 20만 톤 지원을 완료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14.5만 톤에 달하는 중유 및 중유상당액을 지원하였으나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유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의 6자회담 관련 '비핵화 지원' 총액은 미국의 중유지원 단가를 산정해낸 뒤 이를 중국과 러시아의 '비핵화 지원'에 일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4> 북한이 수취한 무상원조 추정(한국 제외)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사회 인도지원	154.5	318.7	234.3	133.2	160.2	125.5	22.0	95.4	120.1
중국 무상지원	35.8	88.9	20.8	14.2	18.9	49.6	48.6	76.6	114.8
미국 중유 비핵화지원	60.6	70.3	86.2	2.3	0.0	0.0	0.0	45.0	106.0
기타 지원	13.9	17.1	1.0	1.0	1.0	1.0	1.0	1.0	104.2
합 계	264.8	496.0	342.2	150.6	180.1	176.0	71.5	218.0	445.2

주: 국제사회의 지원은 각국의 UN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중국,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양자간 인도적 지원을 모두 포함함. 단, 한국의 인도지원 중 UN기구를 통한 다자간 인도지원은 포함됨. 중국 무상지원(2007-08)에는 중유제공 등 '비핵화 지원'이 포함됨. 기타 지원은 EU의 중유지원(2000-01), 러시아의 '비핵화 지원'(2007~08) 등이 포함됨.

자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2000-2005년 통계는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6; 2006-2008년은 UN 인도지원사무국(UNOCHA)에 보고된 실적임. 김석진(2009, 136면)에서 재인용; 한국이 UN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문상원(2009)에서 인용.

## 5. 북한의 자본수지<sup>38)</sup>

### (1) 중국 및 중동국가의 양허성 차관 공여

중국은 매년 약 50만톤 가량의 원유를 중국 북동지역의 헤이룽장성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sup>39)</sup> 중국의 원유 공급가격은 국제시세를 반영하고 있지만 원유 대금은 중국으로부터 중장기 양허성 차관을 도입하는 형태로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원유 수입대금은 북한의 자본수지에 수입액으로 잡혀서 북한의 상품수지의 지출액(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액)을 상각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식량 도입 분 중 상당수가 상업적 수입으로 보이며, 일부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중 얼마만큼이 중국의 양허성 식량차관으로 결제가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sup>40)</sup> 그래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자본수지에 중국의 대북 식량차관 항목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만약 식량차관 공여가 있었다면 그만큼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흑자요인으로 잡힌다.

38) BIS/IMF/OECD/World Bank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상업은행채무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국제민간은행으로부터 단기무역신용을 공여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신용을 공여하는 서방 민간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상 북한에 대한 단기신용 공여액이 너무 많고 그 변동이 심해서 아마도 통계 집계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을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단기무역신용은 단기간에 상환이 되어야만 공여은행으로부터 계속적인 공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단기간의 외화수급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인 몇 년에 걸친 중장기적인 외화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북한의 단기무역신용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서 제외한다.

39) 중국의 대북 원유차관 통계는 중국해관통계와 World Trade Atlas에서 집계하고 있다.

40) 이석(2008)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중 식량 수입이 상업적 성격이라고 한다.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은 북한에 소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2,100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을 통해 제공하였다고 한다. 통상 차관 계약 체결 후 실제 집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차관 제공 연도와 다음 연도에 1/2씩 집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2)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FDI)액

북한에 대한 직접투자 통계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당수의 국가가 투자내역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액이 작을 경우 '기타'로 통합 집계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투자국이 투자내역을 외부에 공표하면 투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북투자액 집계가 매우 어렵다.<sup>41)</sup> 중국은 2000년까지는 북한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투자기업 수, 투자액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대북투자 협의(계약)금액의 합계가 2003년의 13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1억 7,350만 달러로 130배나 폭증하고 2005년에는 이후에도 연간 약 2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이나 『중국상무연감』에 나오는 중국 상무부가 승인한 대북투자액은 2005년과 2006년 평균 1,445만 달러<sup>42)</sup> 정도에 그치고 있어 언론의 수치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상무부의 통계가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를 일정부분

41)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직접투자액에 관한 통계는 UNCTAD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그 출처가 불확실하고 통계치가 북한전문가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본 연구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2) 김영근(2008)에서 재인용하였다.

누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북 투자와 실제 투자실행액에 대한 보도 등을 종합하여 추정치를 제시한다. 구진성(谷金生)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가 2006년 9월 제2회 동북아투자무역 박람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실행액 기준으로 2005년에 5,369만 달러(협약액 1억 345만 달러)이며, 2006년 상반기에는 5,874만 달러(협약액 8,64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sup>43)</sup>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2006년 10월의 핵실험 이후 침체했다가 2007년 2·13합의 이후에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과 2008년의 대북투자 실행액은 2005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국제사회(한국, 중국 제외)의 직접투자액

2000년~2005년 사이에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대북 투자는 2002년 러시아의 정유관련 투자, 2005년 러시아의 금융 관련 투자, 미국의 애니메이션 하청 생산 투자, 영국의 유정개발 투자, 영국의 담배 제조 투자, 스위스의 약품생산 투자 등이 있다.<sup>44)</sup> 2006년부터는 중국, EU 국가의 대북 직접투자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집트의 오라스콤도 최근 북한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5)</sup> 북한이 1990년대 초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를 개설한 이래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관심은 중국 못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배종렬(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를 추정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 추세이면 EU 등 기타 국가의 대북 투자도 증가 추세일

43) 같은 행사에 참석한 상무부 관리는 상무부의 승인을 얻은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액이 2005년에 1,437만 달러라고 밝힘으로써 중국 공식통계의 성격을 확인 해주었다(연합뉴스, 2006년 9월 4일자).

44) KOTRA(2006, 2-12면)를 참조하십시오.

45) 배종렬(2008)은 실제 조업이 확인된 중국과 EU 대북투자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것이다. 중국과 EU의 대북 투자가 서로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이 민간부문의 투자에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EU 등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변화 추세가 중국의 추세와 비슷하며 그 규모는 평균적으로 중국의 약 1/2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 (3) 자본수지 지출 항목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식당, 무역회사지사 등 현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연도에 북한 자본수지에 지출항목으로 기록된다. 중국 상무부에 보고된 수치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의 중국투자 실행액 누계는 9,400만 달러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여 북한의 자본수지 지출을 연평균 1,000만 달러로 가정하였다.

<표 5> 북한의 자본수지 추정(한국 제외)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국 차관	75.6	108.8	76.5	121.0	139.3	197.7	246.9	282.0	414.3
기타 차관	0.0	0.0	10.5	10.5	0.0	0.0	0.0	0.0	10.5
중국 투자	0.0	3.9	2.3	5.3	13.5	53.7	70.5	40.0	40.0
기타 투자	0.0	2.0	1.1	2.6	6.8	26.8	35.2	20.0	20.0
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본수지	65.6	104.6	80.3	129.4	149.6	268.2	342.6	332.0	474.8

주: 양허성 차관과 투자는 실행액 기준.

자료: 중국 차관은 전액 원유도입 관련 양허성차관인데 출처는 중국해관통계와

World Trade Atlas; 임강택·박형중(2009)에서 재인용; 기타 국가 차관은 쿠웨이트 차관 관련 언론보도를 활용한 저자 추정치; 중국 대북투자는 상무부 통계와 투자실행액 언론 보도를 감안한 저자 추정치; 기타 국가 대북 투자는 저자 추정치.

## 6.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

남북교역 통계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누어 발표된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교역’<sup>46)</sup>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입을 나타내는 ‘경제협력’ 그리고 경공업원자재를 반출하고 광산물로 반입하는 거래인 ‘경공업협력’을 포함한다. 비상업적 거래는 민간 및 정부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협력’ 및 ‘경수로 건설’ 비용, ‘KEDO 중유지원’, 북핵 6자회담 ‘에너지지원’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 중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교역수지가 실제로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과 관련이 있다.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교역수지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거의 대부분 남북한 교역 통계에 계상이 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상이전수지, 직접투자 등 자본수지 등에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1) 일반교역과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외화수급

북한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일반교역품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이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46) 남북한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 통계가 상품교역 외에 서비스교역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관기준 수출 통계는 f.o.b 기준이지만 통관기준 수입통계는 c.i.f 기준으로서 보험료, 운임 등 서비스 교역을 포함한다.

반입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상품수지에 남한으로부터의 반입으로 계상되지만 동시에 북한의 자본수지에도 남한의 직접투자 항목에도 동일한 액수가 계상되므로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외화수급에서는 북한의 일반교역수지는 남한으로 반출되는 액수와 같다고 가정한다.

남북위탁가공교역은 북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완제품을 남한에 반출(수출)하는 교역이다. 북한은 위탁가공교역에서 주로 남한기업과 계약에서 확정된 가공비를 외화로 획득하게 된다.<sup>47)</sup> 이종근(2002)에 따르면, 남북위탁가공무역에서 이론적으로는 남한으로의 반입(북한의 수출)금액에서 반출금액(북한의 수입)을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원부자재 중에는 남한산 외에도 중국산 원부자재 등 제3국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근 북한의 위탁가공수지가 큰 폭의 흑자인 것은 이를 반영한다고 한다.<sup>48)</sup> 만약 북한의 위탁가공업체가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사지 않고 중국에서 이를 구입하였다면 북한의 대중 교역적자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는 남한에 대한 위탁가공교역 흑자를 그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비록 남한으로부터의 위탁가공비 수취가 남한으로의 위탁가공 반입금액에서 반출금액을 뺀 금액보다 작더라도 실제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분을 남한에서의 반입 감소분으로 조달하게 된다. 즉,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우회 수

47) 이종근(2002)에 따르면 위탁가공비는 3/4 이상이 인건비 및 식비이고 회사 마진(margin)은 10% 수준이며,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방열비, 영업비 등은 가공비의 극히 일부이다. 그는 남북위탁가공무역의 남한으로의 반입금액(북한의 수출액) 중 가공비의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는 위탁가공무역의 가공비 비중은 품목별로 차이가 나는데, 남북위탁가공무역 통계에서 품목별 반입금액을 이용하면 북한의 외화획득액은 섬유류 반입금액의 25% + 전자제품반입금액의 7% + 기타반입금액의 15%의 합계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48) 반대로 남한산 원부자재로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남한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항구를 거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런데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하는데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재화의 흐름이 중국을 거쳤던, 남한을 거쳤던 북한의 국제수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6>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일반교역수지 및 위탁가공무역수지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교역반출	78.6	100.9	167.4	177.4	150.1	188.9	282.0	441.2	366.4
일반교역반입	32.0	10.5	4.4	46.2	21.2	20.9	22.2	20.2	33.0
일반교역수지	46.6	90.4	163.0	131.2	128.9	168.1	259.8	421.1	333.5
위탁가공반출	72.0	72.6	102.8	111.6	107.7	131.2	159.4	204.5	257.3
위탁가공반입	57.2	52.3	68.4	73.4	68.2	78.5	93.6	125.4	151.2
위탁가공수지	14.7	20.2	34.4	38.3	39.5	52.7	65.8	79.1	106.4
거래성교역수지	61.3	110.6	197.4	169.5	168.4	220.7	325.6	500.2	439.8

주: 반출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자 이동이며, 반입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자 이동임. 거래성교역수지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의 합임.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 (2)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외화수입

1998년 10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후 금강산 관광객 수는 1999년에는 14.8만 명, 2000년에는 21.3만 명에 달하였으나 2001년 이후 급감하였고, 2004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2007년에는 역대 최고인 34.5만 명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현대아산 측이 50만 명 유치를 전망하기도 하였으나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금강산관광은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sup>49)</sup> 북한이 수취하는 금강산 관광수입은 관광객 1인당

49)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송금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 현대 그룹의 대북사업권에 대한 포괄적 대가 3.5억 달러를 편의상 금강산관광 대가

관광대가가 주종이나 이외에도 식품, 선물 등을 판매하는 매대 수입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북한 시설에 대한 임대료,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남한 근로자의 체제비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은 기본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입을 관광객 1인당 70달러로 추정하였다.

개성관광은 2005년과 2007년의 시범관광을 거쳐 2008년에는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는 등 급성장하였으나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이 중단하였다. 개성관광은 당일 관광 입경료가 1인당 100달러이며 식사비 20달러가 추가되었다. 2007년 12월 이후에는 주 6회(월요일 제외) 입경에 하루 300~400명 수준이었다. 기념품비 등으로 관광객 1인당 5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면 개성관광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은 2005년 30만 달러, 2007년 130만 달러, 2008년 1,750만 달러로 추정한다.

### (3) 개성공단 관련 외화수입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3월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임대료 1,6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10년 후부터는 토지사용료도 지불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사회보험료, 초과근로수당 등이 있다. 북측 근로자 기본급의 최저임금은 주당 48시간 근무 기준 50달러에서 시작되어, 2007년 8월부터 매년 5%씩 인상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약 75-80달러로 알려져 있다. 사회보험료는 기본급의 15%로서 입주 업체가 북한 당국에 납부한다. 이외에도 가급급(시간외 수당), 근로자알선수수료 등의 비용이 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관련 공사비, 골재비, 통신비, 세금, 보험료 등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은 발생한다. 이 비용은 연평균 북측 근로자 숫자에 비례하는 것으로 포함하였다.

로 추정하였다. 또한 거의 매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련자들과 상주 직원, 그리고 개성공단 방문자들로부터의 식대, 선물비 등의 외화수입이 있다.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당일 방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방문자 1인당 3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7>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북한방문단으로부터의 외화수입 추정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금강산관광	464.9	41.3	27.4	18.3	34.1	34.4	28.7	44.6	24.7
개성관광	0.0	0.0	0.0	0.0	0.0	0.3	0.0	1.3	17.5
개성공단	0.0	0.0	0.0	0.0	17.7	6.0	13.3	23.8	43.2
북한방문단	12.2	14.3	21.5	25.6	36.1	72.6	59.6	86.2	45.1
합 계	477.1	55.6	49.0	43.9	87.8	113.3	101.6	155.7	130.5

주: 2000년 금강산 관광수입에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입금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권에 대한 포괄적 대가 3.5억 달러도 포함됨.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2008년에 중단되었음.

자료: 저자 추정치.

#### (4) 기타 지역 북한방문자로부터의 외화수입

금강산, 개성,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하고도 매년 상당수 한국인이 북한 지역을 방문한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숙박비, 식대, 교통비, 선물비 등으로 지불하는 외화도 상당하다. 통상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3박 4일간 북한에 머무르는데, 방문 목적은 평양, 남포, 원산, 사리원 등 북한 지역에 대한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들이 머무는 북한의 호텔은 숙박비와 식대가 매우 비싸다. 본 연구는 관광 및 사회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

하는 남한 인사들이 평균 3박 4일의 여정으로 왕복 항공비 380달러<sup>50)</sup>, 호텔은 1박에 평균 120달러, 식대는 하루 평균 100달러<sup>51)</sup>, 교통비는 3박 4일에 160달러, 선물비로 1인당 약 300달러 정도를 지출하여 총 1,6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sup>52)53)</sup>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공연, 방송, 언론 등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대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대가’ 중 외화로 지급된 액수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대가’도 방문객 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sup>54)</sup>

## 7. 북한의 무기수출입<sup>55)</sup>

1980년 후반에는 북한은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한편 수입국의 군사교관훈련 등 기술지원도 제공함으로써 연 5억 달러에 달하

50) 북한 방문시 고려항공(또는 우리 국적기)을 이용하면 비행기 1대당 약 7만 달러의 항공료를 지불한다고 한다. 위의 추정치는 비행기 1대당 약 100여명이 탑승하며, 2번에 한번 꼴로 북한 국적기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었다.

51) 대개의 경우 남측 방문단의 식사시 북측 동행 인원에 대한 식대는 남측에서 지불한다.

52) 원산에서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업체 관계자의 증언(2008년 기준)에 따르면 북한 출장시 하루 체제비는 호텔, 식대 등을 합해 약 25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53)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가 개성의 자남산여관에서 137일간 억류된 후 석방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 씨의 숙박비와 식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114.9 달러를 현대아산 측에 청구하였다고 한다(테일리NK, 2009년 8월 25일자). 개성의 자남산여관이 평양에서 남한 방문단이 주로 머무는 양각도호텔, 고려호텔, 보통강호텔 등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추정치는 북한이 평양에서 청구하는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4) 남한투자기업의 상주직원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숙박비와 식대는 상당히 비싸다. 이외에도 북한은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보위부 등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들이 외부인과 접촉 시에 드는 음식료 등 제반 비용은 거의 대부분 외부인이 지급하게 된다.

55) KOTRA의 거울 통계에는 북한의 무기수출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만약 북한 무기거래가 KOTRA 통계에 잡힌다면 그 만큼 북한 외화수급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무기를 수출하여 당시 북한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수출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게 된다.<sup>56)</sup>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의 무기수출에 관한 통계를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발표하고 있다.<sup>57)</sup> SIPRI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액은 2001년 1억 달러, 2002년 2억 1,650 달러, 2003년 1억 7,30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5,65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8)59)</sup>

2005년~2008년의 북한 무기수출액 추정은 Haggard and Noland(2007)를 반영한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출에 관한 세계의 주요 연구기관들의 추정치는 2000년 이후 북한의 무기거래는 매우 위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WMD 확산방지구상(PSI), 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노력 등과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감시로 북한의 무기수출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sup>60)</sup> 현재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상당량 구입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sup>61)</sup>, 시리아 정도에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북한 무기수출은 2005년에는 6자회담 진전 등 분위기 호

56) Haggard and Noland(2007), 47면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57) 북한의 무기수입에 관한 통계는 2008년까지 발표하고 있다. SIPRI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입은 1999년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전투기 대량 구매(2억 달러 이상) 이후 연 800~4,2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58)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1-2004년 간 북한의 무기수출 합계는 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SIPRI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Grimmer(2009, p. 54)를 참조하시오.

59)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무기수출입 통계는 실제 거래액이나 세관통관 기준이 아니라 무기수출입 물량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미국 달러(1990년 불변가격 기준)로 전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달러 1990년 불변가격을 미국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하여 경상가격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60) 이 기간 동안에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UAE, 리비아 등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구매를 중단했다고 한다. Haggard and Noland(2007, p. 5).

61) 이란은 UN에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소수의 중동 국가들 중 하나이다. Haggard and Noland(2007, p. 5).

전으로 2004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6년 UN 안보리결의 1718호의 발효로 2006년 이후의 북한의 무기수출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북한의 무기수출입 추정치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무기수출	16.6	101.0	216.5	173.7	56.5	123.1	62.3	48.7	46.8
무기수입	24.3	39.4	13.4	13.8	12.7	7.2	7.4	7.6	7.8
수 지	-7.7	61.7	203.1	159.9	43.8	115.9	54.9	41.1	39.0

자료: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수출입 통계치(1990년 미국 달러 불변가격)를 경상가격으로 변환하여 사용. 2005~2008년 무기수출 추정치는 저자 추정치.

## 8.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취득

### (1) 북한의 마약거래 외화수입<sup>62)</sup>

Perl(2005), Asher(2006) 등이 추정한 아편, 암페타민 등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은 연간 7,000만~2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치는 북한이 마약거래에서 실제 수취하는 외화수입을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sup>63)</sup> Haggard and Noland(2007)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의 2000년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2000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가 추정한 1998년 기준 북한의 아편재배 면적은 4,200~4,700 헥타르에 달한다. 여기

62) Haggard and Noland(2007, pp. 7-10)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63) 언론에 보도되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은 대부분 과장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추정치 중에서 역대 최고치를 마치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서 재배되는 아편은 연간 30~44톤 정도 되는데, 이는 4.6~6.8 톤의 헤로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2005년도 세계마약보고서(2005 World Drug Report)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농가가 생산한 아편의 현장판매가격은 1kg에 142~234 달러(평균 200달러)였다고 한다. 북한이 생산한 아편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량 수출한다면 약 600~9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아편을 헤로인으로 전환하여 수출하면 2001년 기준 중국에서 1kg 당 20,000달러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생산된 아편을 전량 헤로인으로 만들어서 모두 중국으로 수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하여도 9,200~1억 3,500만 달러가 최대치이다.

최근의 다수의 연구결과들은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2005년도 세계마약보고서(2005 World Drug Report)는 전세계 헤로인과 아편시장의 동향에 대한 매우 자세한 서술을 하면서도 북한의 마약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Haggard and Noland(2007)는 2005~06년도의 북한의 마약거래 수입을 연 1,750만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추정치를 채택하고 2007~08년도의 마약거래 수입은 이보다 적어진 것으로, 2005년 이전에는 이보다 많다고 추정한다. 북한은 2003년 4월 호주에서 헤로인 125kg을 밀반입하려다 나포된 ‘봉수호’ 사건 이후 마약밀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0년 초에는 마약거래 수입이 연평균 4,500만 달러 정도였으나 2003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외화수입

북한은 19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의 생산국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 직후 미국이 마카오의 BDA에 대한 돈세탁 의혹을 제기

한 것도 “슈퍼노트”가 문제의 근원에 있었다. Haggard and Noland(2007)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총 5,000만 달러어치의 달러 위조지폐가 색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달러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유통시키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이는 위조에 필요한 정교한 인쇄기, 지폐 용지, 잉크 등이 모두 고가의 수입품이며 위조지폐는 대규모로 제조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Asher(2006)도 북한은 위조지폐를 생산하면서 액면가의 약 40% 정도의 불법수입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이 그동안 발견된 모든 위조지폐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총 5,000만 달러의 40%, 즉 2,000만 달러의 실제 외화수입을 획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1996년 이후 ‘슈퍼노트’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연평균 약 200만 달러의 불법 외화수입을 획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이 위조한 지폐의 50%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위조지폐 수입은 연 400만 달러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러한 위조지폐도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Chesnut, 2007).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에 북한의 위조지폐로 인한 외화수입은 급감한 것으로 가정하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는 연평균 400만 달러,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100만 달러로 추정한다.

### (3) 북한의 위조담배/의약품 제조 외화수입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2005년 BDA 제재 이후 북한은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유통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위조담배나 위조의약품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담배는 중국, 대만과의 합작회사형태로 생산해서 주로 중아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밀매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위조담배나 위조의약품의 생산으로 2002년부터 연 300~500만 달러의 불법수입을 얻고 있다고 가정하며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가정한다.

<표 9>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수입 추정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마약거래	50.0	45.0	40.0	25.0	20.0	17.5	17.5	10.0	10.0
위조지폐	4.0	4.0	4.0	4.0	4.0	4.0	4.0	1.0	1.0
위조담배 등	1.0	1.2	4.2	4.3	4.5	4.6	4.7	4.9	5.0
합계	55.0	50.0	48.2	33.3	28.5	26.1	26.2	15.9	16.0

자료: 저자 추정치.

#### IV. 마치며 : 종합, 토론 및 시사점

##### 1. 북한의 외화수급 종합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상품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 누적 상품수지 적자는 9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외화수요를 충족해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무기거래, 마약 및 위조지폐 생산·유통을 통해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거래에서 얻는 외화수지는 9년간 7.1억 달러이고, 북한의

불법수입은 3억 달러로서 9년간 모두 10.1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한해에 북한이 불법수입으로만 5~10억 달러를 번다는 언론보도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일 것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9년간 9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는 남한과의 거래성교역 수치에서 24억 달러의 흑자, 서비스 수치 흑자 23억 달러, 소득수지 흑자 5.9억 달러, 경상이전수지 흑자 27.4억 달러, 자본수지 흑자 19.5억 달러를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무기거래, 불법수입 없이도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3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외화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9년간 외화수지의 흑자 누계는 9.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sup>64)</sup> 여기에다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최종적인 외화수급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 흑자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서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상 가장 흑자가 많았던 해는 2007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기거래수지, 불법수입까지 포함하면 외화수급 흑자가 약 4.3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2년에는 약 3.6억 달러, 2008년에도 약 2.9억 달러의 외화가 북한으로 순수입되었다고 추정된다. 2002년의 흑자가 주로 무기거래 흑자에 기인한 반면, 2007년과 2008년의 흑자는 ‘공식적인’ 외화수급 상 흑자에 대부분 기인한다. 이는 자본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흑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남한과의 거래성 교역 흑자의 대폭 증가와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른 6자회담 ‘비핵화 지원’의 새로운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64) 정상회담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3.5억 달러 등 총 4.5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lt;표 10&gt;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종합)

(단위: 100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교역수지 (대외)	-841	-969	-788	-837	-817	-1,005	-1,102	-1,103	-1,555	-9,018
거래성수지 (남한)	93.3	121.1	201.8	215.7	189.6	241.6	347.8	520.4	472.8	2,404
서비스 수 지	581.5	162.9	166.1	157.1	204.3	240.3	225.3	293.4	274.6	2,301
소득수지	47.2	48.6	52.1	57.0	61.9	68.4	80.6	84.2	87.8	588
경상이전 수 지	323.5	554.7	393.9	200.8	232.7	207.0	101.7	249.2	477.5	2,741
자본수지	65.6	104.6	80.3	129.4	149.6	268.2	342.6	332.0	474.8	1,947
외화수지 (소계)	270.1	22.9	106.2	-77.0	21.2	20.5	-4.1	375.6	232.5	968
무기수지	-7.7	61.7	203.1	159.9	43.8	115.9	54.9	41.4	39.0	712
불법거래	55.0	50.0	48.2	33.3	28.5	26.1	26.2	15.9	16.0	299
외화수지 (종합)	317.4	134.8	357.4	116.3	93.5	162.5	77.1	432.5	287.5	1,979

주: 거래성교역수지(남한)에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가 포함되며, 경제협력과 지원성 거래는 제외됨. 따라서 자본수지에는 남북간 투자액·경제협력액은 제외됨. 일반교역수지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수요이므로 북한의 외화수급에서는 제외하므로 일반교역수지는 북한에서의 반출만 해당됨. 서비스수지에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관련 수입,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수입, 정상회담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3.5억 달러 등이 포함됨. 경상이전수지에는 KEDO 중유지원과 6자회담 '비핵화 지원'이 포함됨.

## 2. 2008년 12월 대중 수입 폭증의 미스터리

북한의 2007년의 상품수지 적자 약 11억 달러에 비해서 2008년의 적자폭이 15.5억 달러로 대폭 확대된 이유는 2008년 12월에 북한이 중국

으로부터 월평균 수입액의 3배 이상(4.3억 달러)을 한꺼번에 수입한데 기인하고 있다. 2008년 말은 남북교역의 악화 등으로 북한의 외화수급 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향후 외화수급 전망도 국제적 금융위기,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sup>65)</sup> 실제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북한이 이만한 외화를 과연 쉽게 지불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이나 북한의 무역 관련자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불법 수출입거래를 일시에 양성화 시키기 위해 실제 외화지급은 없이 중국해관 통계상으로만 수출(북한의 수입)로 계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었다. 그런데 북한의 외화수급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니 2000년 이후 북한은 이미 상당한 외화를 축적하고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12월 대중 수입 급증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외화가 부족하지 않은”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른 대량 수입은 항상 가능할 것이다.

### 3. 추정을 시도하지 못한 항목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의 경우 필요한 물자를 남북한 교역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 않고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북 투자가 제 3국의 상품수지에 잡히므로 본 연구의 외화수급 추정 방식에서는 “누락”되게 된다. 따라서 그 만큼의 액수가 남한의 대북 투자(또는 중국의 대북 투자)에 계상되어야 하나 그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지 않고 중국 등 제 3국을 통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이 액

65) 2009년부터 시작될 공산품의 시장판매 통제조치와 관련하여 국영상품 판매제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사전 구매작업 등이 있다. 임강택·박형중(2009, 20-22면)을 참조하시오.

수만큼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 한국의 대북 무상지원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나 민간이 제3국에서 옥수수 등 식량을 구매하여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상품수지에는 수입으로 계상되며,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는 무상지원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북중간에는 변경무역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무역은 변경소액무역과 변민호시무역으로 구성되는데 변경소액무역은 중국 해관총서에서 통계가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sup>66)</sup> 그런데 1인당 3,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변민호시무역은 그 규모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중간에 성행되고 있는 밀무역은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는데 북측이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교역통계가 상품수지만이 아니라 운송비 등 서비스수지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 반출입액에서 이를 분리해 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산 모래의 국내 반입에 남한 선박이 대부분 이용된다면 남한으로의 모래 반입액(북한의 반출)에서 선박운송비는 분리해서 그만큼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모래 반입시 수송비가 70%에 육박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BDA 사태를 조사하던 중 북한이 BDA에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금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sup>67)</sup> 이 보도의 진위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얼마만큼이 통계에 잡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최근에 들어와서 건설회사가 아프리카 등에 진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대형조형물이나 주요 시설 건설에 참여하여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와 이윤까지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8)</sup> 이러한 외화수

66) 중국변경무역에 대해서는 조명철 외(2005)를 참조하시오.

67) Haggard and Noland(2007, p. 32).

입은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4. 시 사 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공식적인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해보는 것이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당국의 가용한 외화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북한은 무기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도 줄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특히 2008년에는 무기거래와 불법행위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로 대폭 감소하였고, 여기에다 남한이 비료 무상 지원과 쌀 차관을 중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수급이 거의 2.9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았다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이 2000년 이래 누적 흑자가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추정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연성을 도출할 수 있다. ① 북한 당국은 외화수급이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면적인 경제붕쇄, 중국의 대북지원의 급감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고 있다. ② 북한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상당한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외화가 여기서 조달된다. ③ 북한

68) 연합뉴스 2009년 10월 16일자.

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호화사치품, “선물” 등을 제3국 기업, 외교행랑을 통하여 비밀리에 북한으로 운송할 수도 있다. ④ 북한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외화가 북한 내부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먼저 ②에 대해서 미사일, 핵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이 구입해서 비밀리에 반입할 수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미사일과 핵실험에 사용되는 외화는 언론에 보도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sup>69)</sup> 인건비가 비싸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서방선진국의 미사일, 핵개발 비용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이 여기에 실제로 투입한 외화는 아마도 언론에 보도된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미사일, 핵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획득하는데 충분한 외화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그것을 북한으로 반입하는가가 문제였을 것이다. ③의 경우도 몇 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②와 ③에 쓰고도 남는 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①외환보유고의 축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본 연구는 ④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외화부족이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호소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는 한편 외화 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해외 ‘외화벌이’를 장려하고 ‘외화벌이 일꾼’을 양산하기 위해 무역회사 설립과 외화소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외화벌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나 북한 당국의 외화에 대한 통제권이 일정 부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외화가 북한 내부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sup>70)</sup> 2007년경 부

69) 연합뉴스 2009년 7월 4일자 보도에 의하면, 2009년 5월 25일의 핵실험에는 3~4억 달러, 4월의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와 약 20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비용의 합계가 약 3억~3억 5천만 달러로 2009년에만 약 7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70) 2005년 마카오 BDA 북한 계좌 동결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이 모르는

터 북한은 노동당, 군부 등의 자체외화관리, 부패 등에 대한 감찰을 통해 당국의 외화 통제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통일전선부 등 당 기관에 대한 감찰도 급증하였고, 민경협 정운업 회장 부패 사건 등도 외화관리에 대한 통제력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양한 추정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 등 외화수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희소한 현실에서 이 추정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식과 추정치들이 향후 북한의 외화수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계좌 13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황일도(2007, p.360)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문헌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2007), 『KEDO 경수로사업 지원 백서』.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2008),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8-05,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석진(2009),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영근(2008),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년.
- 문상원(2009), “UN의 대북지원 현황”, 『수은북한경제』, 2009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 배종렬(2008),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 이석(2008), “북한 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북일·남북 교역”,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석·이재호(2008),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근(2002), 『남북위탁가공무역 구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년 12월.
- 임강택·박형중(2009), 『2008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통일연구원.
- 조명철(2009),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09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책연구 05-1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통일부.
- 한국은행(2006),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
- 황일도(2007), “탈북 외환딜러 최세웅이 분석한 ‘BDA 문제’의 실체,” 『신동아』, 2007년 6월호.
- KOTRA(2006),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호.
- Asher, D. L.(2006),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5-92A.

- Chesnut, S.(2007),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32, no.1, 80-111.
- Grimmett, R. F.(2009),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1-2008," CRS Report R40796, September 4, 200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Haggard, S. and M. Noland(2007),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Manyin, M. E. and M. B. Nikitin(2009),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R40095, May 20, 200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anyin, M. E. and M. B. Nikitin(2008),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R40095, December 24, 2008,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Perl, R.(2005), *Drug Trafficking and North Korea: Issue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March 4).

*Abstract*

##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2000 through 2008

Hyungsoo Zang(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the years 2000 through 2008. Quite striking results obtained are that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no problem in procuring foreign exchanges well over their import requirements of over 9 billion US dollars for the period 2000 through 2008. This was done even without selling arms and illegal products such as opiums, counterfeiting of US notes (so-called "super-notes"), drugs or cigarettes. North Korea's "official"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has been very likely to be on the surplus side for almost every year for the estimation period. Even more than that, North Kora has accumulated foreign exchanges at least since 2000 if we count trades of arms and illegal products.

투 고 일: 2009년 10월 16일

심 사 일: 2009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11일